

태극전사들이 젊은피와 베테랑의 절묘한 조화를 앞세워 9년 전 0-5 패배의 쓴맛을 안겨줬던 '오렌지 군단' 사냥에 나선다.



이천수 조재진 염기훈



9년전 '0-5 악몽' 우리가 씻겠다

이번 대결은 1998년 프랑스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네덜란드에 0-5로 패했던 아픈 기억을 태극전사들이 9년 만에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어벡호 오늘 오후 8시 네덜란드와 평가전 조재진 원톱, 염기훈·이천수 '좌우 날개'로

무엇보다 대표팀의 핵심전력으로 손꼽히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레딩)이 한꺼번에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태극전사들이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 지도 관심거리다.

한국 화려한 공격력에 맞서기 위해 최전방에 조재진(시미즈)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발 빠른 염기훈과 이천수를 좌우 날개로 배치하는 4-3-3전술을 내세울 전망이다.

K-리그 선수들이 꼽은 최고의 테크니션 김두현(성남)이 포진한다. 김두현의 뒤를 받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경험 많은 김남일(수원)과 함께 김정우(고양)나 이호(제니트) 중 컨디션이 좋은 1명을 먼저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손 들고만 위성미

LPGA 긴 트리뷰트 1R 16번홀까지 14오버파 부진 손목부상 이유 기권...출전금지 규정 피하기 의혹도

위성미(18·나이지키골프)가 넉달 만에 필드에 복귀했지만 파5홀에서 10타를 치는 등 형편없는 스코어를 적어낸 끝에 기권하고 말았다.

남은 2개홀에서 2타를 더 잃었다면 위성미는 규정에 걸려 올해 LPGA 투어 대회 출전길이 막힐 뻔 했기 때문이다.

최경주 순조로운 출발

3언더파 17위...양용은 75위 PGA 메모리얼토너먼트 1R

'한국산 탱크' 최경주(37·나이지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모리얼토너먼트 첫날 언더파 스코어를 내며 순조롭게 스타트를 끊었다.

장을 보내는 이번 대회에 7년 연속 출전한 최경주는 71%가 넘는 페어웨이 안착률, 78%의 그린 적중률에다 그린 적중시 1.64개의 평균 퍼트수로 3박자가 적적 맞아 떨어졌다.



위성미가 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버타운 골프장에서 열린 LPGA투어 긴 트리뷰트 1라운드에서 티오프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상체가 물에 떠서 좋아요"

박태환 전신수영복 착용 소감

"상체는 확실히 뜨는데..."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전용 전신수영복 제작을 위해 시범 착용을 되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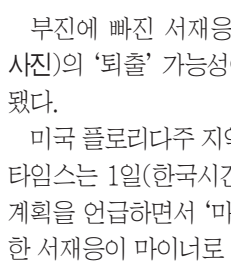
'마린보이' 박태환이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수영장에서 후원사 '스피드'측이 특별 제작한 전신수영복을 시범 착용하고 있다.

최흥만 K-1 미국대회 출전 못할듯



'테크노 콜리엇' 최흥만(26·사진)이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K-1 다이너마이트 USA' 대회에 끝내 출전하지 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美 언론 "서재응 퇴출 가능성"



부진에 빠진 서재응(30·탐파베이 데블레이스·사진)의 '퇴출' 가능성이 현지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바둑·롤러스케이팅·정구

아시아게임 참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바둑과 롤러스케이팅, 정구가 마침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블래터 FIFA 회장 3선



제프 블래터(71·스위스·사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경쟁자 없이 3선에 성공했다.